

양현종, 빅리그 도전 KIA와 FA 협상 종료

“기다려주신 구단에 감사하고 죄송”

양현종(33·전 KIA 타이거즈)이 꿈을 향한 도전을 택했다.

KIA는 1월 30일 “양현종이 빅리그 도전 의사를 밝혔다. KIA는 양현종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유계약선수(FA) 양현종과의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KIA와 양현종은 이날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내 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현종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단은 이를 받아들이고 FA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양현종은 구단을 통해 “저의 꿈을 위한 도전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구단에 죄송하면서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맷 윌리엄스 감독님께도 함께 하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양현종은 2007년 2차 1라운드 1순위로 입단한 KIA의 프랜차이즈 스타다. 2017년 첫 번째 FA 자격을 얻은 뒤에도 KIA에 잔류에 잔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꿈의 무대’를 향한 의지를 놓지 않았다.

KIA는 “해의 진출에 대한 양현종의 꿈과 의지를 존중하며 그동안 타이거즈에 헌신한 양현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현종이 미국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김민정기자



미국 현지지의 시선 “양현종 40인 로스터? 글썽”

양현종(33)이 KIA 타이거즈와의 협상을 접고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선언한 것을 두고 현지 언론은 위운길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MLB 소식을 주로 다루는 MLB 트레이드머스닷컴(MTR)은 1월31일(한국시간) 양현종의 MLB행 추진을 전하면서 “40인 로스터를 보장 받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한 양현종은 지난 30일 KIA 타이거즈 조계현 단장을 만나 재계약 대신 MLB 진출을 노려보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달했다.

구단이 이를 받아들여 양현종과 KIA의 FA 협상은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단들이 FA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잔류가 유력해보였던 양현종은 나쁜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미국행을 꼭 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랜 꿈인 빅리그 등판을 위해서는 40인 로스터 보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MTR는 지난 시즌 양현종의 성적을 언급하면서 협상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MTR은 “양현종은 지난해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다”면서 “17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4.70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시즌 2.29와 큰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MTR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양현종의 헷스윙 유도 비율과 제구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라며 “양현종의 탈삼진 비율은 20%로 2% 이상 하락한 반면, 볼넷 비율은 4.5%에서 8.6%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진로를 확실히 정한 만큼 양현종은 남은 기간 미국행 추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한편 양현종은 구단을 통해 “저의 꿈을 위한 도전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구단에 죄송하면서도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맷 윌리엄스 감독님께도 함께하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마운드 떠난 권혁 “내 선수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다”



“시즌 준비를 안 하는 건 20년 만인 것 같아요.”

2002년에 데뷔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인생의 절반을 현역 선수로 살아왔던 권혁(38)은 이제 전 프로야구 선

수다. 두산 베어스에서 뛰던 권혁은 지난 시즌 종료 후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상대 타자들을 억박질렀던 권혁은 몸상태가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유니폼을 벗었다.

권혁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미련없이 그만뒀다”고 돌아봤다.

은퇴 후 맞이하는 첫 겨울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다. 작년까진 개인 훈련과 스프링캠프로 바쁜 겨울을 보냈지만 지금은 다르다.

권혁은 “몸만들기를 안 해도 되는 겨울은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 이

“은퇴 후 모처럼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중”

“어딘가 내 역할이 필요한 자리가 있을 것”

시기에는 늘 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면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하루 일과 중 대다수 시간을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할애하는 중이다. 전화 통화 중에도 간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권혁은 “매년 집 밖에 나가있는데 이제는 계속 가족들과 함께 한다. 그동안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다. 힘들진 않다”고 웃었다.

이어 “은퇴를 했지만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다. 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살은 오히려 빠졌다. 음식량을 줄이나

체중이 줄더라”고 보였다. 2002년 삼성 라이온즈를 통해 프로에 뛰어든 권혁은 프로 통산 781경기에 출전했다. 영원한 삼성맨으로 남을 듯 했던 그는 2015년 한화 이글스로 이적해 네 시즌을 소화했다. 마지막 2년은 두산에서 보냈다.

통산 홀드 2위(159)와 6번의 우승,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등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낸 것과 대조적으로 권혁은 조용한 작별을 택했다. 은퇴식은 물론 흔한 기자회견조차 없었다.

권혁은 ‘경력에 비해 잠잠하게 떠난 것 같다’는 이야기에 “아니다. 내 선수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다. 깔끔하게 물러났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마지막 인사

를 건네는 은퇴식의 아쉬움도 없다고 했다. “사실 내가 원클럽맨도 아니지 않다. 은퇴식 욕심은 정말 없었다. 팬찮다”고 전했다.

권혁은 당분간 재충전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생각이다.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야구계에 보답하겠다는 큰 틀은 세워둔 상태다.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공부도 해보고 싶다”는 권혁은 “어디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딘가에 내 역할이 필요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김학범호, 수원FC에 2-1 역전승 제주 전지훈련 연습경기 3연승

도쿄올림픽에서 9년 만에 올림픽 메달 사냥에 도전하는 김학범호가 제주도 전지훈련지에서 열린 프로팀과의 세 번째 평가전에서도 승리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1월 30일 제주 강창학 공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연습경기에서 2-1로 역전승했다.

앞서 포항 스틸러스(3-1 승), 성남 FC(4-0 승)를 상대로 승리한 김학범호는 제주 전지훈련 연습경기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김학범호는 전반 19분 수원FC 이영재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12분 조영욱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춘 데 이어 후반 43분 이동룡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김진규가 성공하며 2-1 역전에 성공했다.



김학범호 공격수 조영욱.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김학범호는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강릉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으며, 1월 19일부터 오는 2일까지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이어간다.

총 4차례 연습경기 중 3경기를 치른 김학범호는 2일 오전 11시 대전하나시티즌과 마지막 연습경기를 하고 해산한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친정 SK 스프링캠프서 일주일 훈련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에서 뛰는 김광현이 친정팀 SK 와이번스의 제주 스프링캠프에서 몸 만들기에 나선다.

김광현측 관계자는 1월31일 “김광현이 일주일 가량 SK의 제주 스프링캠프에서 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류 시기는 3일 혹은 5일이 유력하다. 4일은 SK의 휴식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 달리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김광현은 SK의 배려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컨디션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김광현은 SK 선수단 훈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언론 인터뷰 등 일체

의 미디어 접촉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김광현측 관계자는 “SK가 신경을 써줘서 김광현이 SK 캠프에 합류하는 것이다.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입국한 김광현은 11월부터 부산과 인천을 오가며 운동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SK에서 함께 했던 허재혁 현 롯데 자이언츠 트레이닝 코치의 도움을 받아 부산에 머물러왔다.

따뜻한 제주에서 마지막 점검에 돌입하는 김광현은 다음달 중순 세인트루이스의 스프링캠프 합류차 미국으로 떠난다.

뉴시스

현대캐피탈, 우리카드에 또 ‘뒤집기 쇼’...0-2에서 3-2로



현대캐피탈이 갈 길 바쁜 우리카드의 발목을 잡았다.

현대캐피탈은 1월3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전에서 세트스코어 3-2(19-

25 21-25 27-25 25-15 16-14)로 이겼다.

지난 20일 맞대결과 정과 결과 모두 같았다. 당시 현대캐피탈은 세트스코어 0-2의 열세를 딛고 내리 세 세트를 따냈다.

이번에도 초반 분위기는 우리카드가 잡았다. 알렉스의 공격이 불을 뿜으면서 어렵지 않게 1,2세트를 쟁겼다.

벼랑 끝에 몰린 현대캐피탈은 3세트 막판 힘을 냈다. 잠시 빠져있던 다우디가 20-19에서 재투입된 후 공격이 살아났다. 다우디는 25-25에서 상대의 집중 견제를 뚫고 2연속 후위공격에 성공, 팀에 한 세트를 선사했다.

4세트는 일방적이었다. 3세트 승리로 사기가 오른 현대캐피탈 젊은 선수들은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우리카드 코트를 맹폭했다. 최민호는 5-2에서 알렉스를 블로킹으로 돌려세우며 베테랑의 진가를 뽐냈다. 17-8에서는 허수봉의 서브에이 스까지 나왔다.

우리카드는 크게 흔들렸다. 류윤식은 손쉬운 밀어넣기 실수를 범한 뒤 교체 아웃됐다. 다른 선수들 역시

3세트를 내준 허탈함 탓인지 경기 초반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승부의 추를 원점으로 돌린 현대캐피탈은 5세트 9-11에서 최민호의 2연속 공격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11-12에서는 알렉스의 서브 범실과 다우디의 후위공격으로 리드를 빼앗겼다. 현대캐피탈은 15-14에서 다우디의 날카로운 강타로 점전을 끝냈다.

현대캐피탈은 승점 27(10승16패)로 6위를 유지했다. 다우디가 23점을 올렸고, 시즌 첫 선발 출전한 문성민이 14점으로 활약했다.

우리카드는 승점 42(14승12패)로 4위에 머물렀다. 알렉스(33점)와 나경복(23점)의 선전도 소용없었다. 올 시즌 현대캐피탈전 상대 전적은 1승4패가 됐다.

뉴시스